

<서평>

Migration Bible
(Haarlem/Antwerpen: 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 2023)

배선복*

1.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항상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해 왔고, 그 결과 세계 구석구석에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구성하며 살고 있다. 때로는 기존의 공동체에 이주자들이 유입될 때,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한다. 기존의 문화들이 융합되고, 발전하며,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 사이의 접촉이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오늘날 대량의 이주자 유입은 사회 문제로 여겨진다. 몇 년 전 우리나라도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북미나 유럽 등 서구에서는 이주자나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아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주자로서, 혹은 이주자들을 이웃으로 둔 비이주자로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러한 세대에 발맞추어, 네덜란드-플랑드르 성서공회(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협력하여 *Migration Bible*을 출판했다.¹⁾ 우리말로 “이주 성경”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성경은 21세기,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시간강사. rough2000@stu.ac.kr.

1)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이주 성경”이라는 번역보다는 *Migration Bible*이라는 영문

국경 간 이주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성경이 이주자와 이주자를 이웃으로 둔 비이주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이주자와 비이주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Migration Bible*이 염두에 둔 이주자가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들만인 것은 아니다. 정당한 서류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고향을 떠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성경은 주로 난민, 불법 체류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주한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더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 서평은 *Migration Bible*의 성경 번역본, 구성, 내용, 집필진 등,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아쉬운 점과 유익한 점으로 나누어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한국 상황에서 이 성경의 활용도도 간단하게 논할 것이다.

2. 주 독자층과 번역본 선택(Good News Translation)

*Migration Bible*은 새로운 영역 성경은 아니고, Good News Translation(GNT, =TEV 2판, 1992년)을 본문으로 삼고 있다. GNT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는 영역 성경은 아니지만,²⁾ 영미권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사랑 받는 번역 중 하나이다. 이 번역은 유진 나이다(E. Nida)가 주창한 동적 등가(dynamical equivalence) 혹은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원문 텍스트의 생각과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며,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한다.³⁾ 따라서, 교회 배경이 많지 않고, 영어 능력이 원어민보다 제한된 선교지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Migration Bible*의 독자층은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지만, 제목의 “이주”라는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조금 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2) 그러나 GNT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비록 성경 본문으로는 『개역개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한성서공회는 GNT를 기반으로 한 영문 해설 성경인 *Good News Study Bible*을 이미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에 번역 출판한 적이 있다. 참조,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0.

3) 참조, American Bible Society News, “Dr. Eugene Nida (Nov. 11, 1914 - Aug. 25, 2011)”, <https://www.news.americanbible.org/article/dr.-eugene-nida-nov.-11-1914-aug.-25-2011> (2024.7.29.); “Preface”, American Bible Society, *Good News Bible: Good News Transl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2). “Preface”의 저자나 페이지 번호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자기 고향을 떠나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이 주 독자층이다. 특히 전자의 독자들을 위해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착안한 GNT는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였을 것이다.⁴⁾

3. 구성

*Migration Bible*의 주요한 구성적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3.1. 장문 기사(Long reads)

첫 번째 요소는, 성경 본문 중간에 읽을거리로 수록된 장문 기사이다. 장문이라고 하지만 모두 두 페이지에 불과하여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장문 기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의 이주민 상황과 대응하는 성경 시대의 이주 이야기로 다루며,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장문 기사는 “성경 안의 이주 (Migration in the Bible)”와 “성경과 관련된 현대적 주제들 (Contemporary themes in relation to the Bible)”이라는 두 가지 대주제로 분류되고, 두 가지 대주제 아래 열일곱 개의 소주제를 담은 기사로 나누어진다.⁵⁾ 다음은 열일곱 개의 장문 기사들을 요약한 것이다.

3.1.1. 성경 안의 이주

- 성경 속의 이주자와 관련된 용어들⁶⁾

성경에서 외국인을 지칭하는 단어인 게르(גר), 토샤브(תושב), 노크리(נכרי), 자르(זר)의 의미와 지위 차이에 관해 논한다.

- 성경과 오늘날의 여성 이주자들: 나오미, 오르바, 룯의 이야기⁷⁾

룯기에 나오는 남편과 자식을 타지에서 잃은 나오미와 그의 외국인 며느리들인 룯과 오르바는 여성 이주자의 전형이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다양

4) GNT와 비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번역으로는, GNT와 마찬가지로 미국성서공회 (American Bible Society)가 번역한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이 있다. CEV를 본문으로 하는 스테디 바이블에 관한 서평이 「성경원문연구」에 실린 적이 있다. 참조, 최진영, “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11)”, 「성경원문연구」 35 (2014), 371-384.

5) 대주제와 소주제라는 표현은 *Migration Bible*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다.

6) *Migration Bible* (Haarlem/Antwerpen: 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 2023), 65.

7) *Ibid.*, 253.

한 이유로 이주자가 된다. 그들은 타지로 나아가야 하는, 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 엘리야의 이주 이야기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이주한다. 성경의 엘리야가 그랬다. 하나님은 때로 이주를 허락하시지만, 타지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한다. 그렇지만, 어려운 삶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를 통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심을 믿어야 한다.

-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다⁹⁾

불법 체류자로서, 난민으로서의 고통은 하나님께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삶은 불확실과 불안정의 연속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심을 노래한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릴 때, 시편 46편이 주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쉼터가 되신다는 것이다. 법적 소속감이 없는 이주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신다.

- 포로 이주자로부터 온 축복¹⁰⁾

강제 이주를 당한 이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의 이름, 문화, 종교, 양심 등을 버리도록 요구받는다. 이것들을 고수하다가 비난받거나 부당한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는 바벨론에 축복을 가져왔다. 오늘날의 이주민들도 다니엘처럼 이주한 곳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해야 하고, 이주민의 성실성은 이주 지역의 축복이 될 것이다.

- 성경과 현재의 내부자들과 외부자들¹¹⁾

이방인을 의미하는 많은 현대 용어는 사실 법률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이것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하지만 예수는 이 용어와 상관없이 외부인을 이웃으로 대하도록 정의하셨다.

- 성경과 오늘날의 국경 안 이주¹²⁾

이주는 국경 바깥에서만 아니라, 국경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 숨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아마) 일자리를 찾아 넘어온 것처럼(마 20:1-15) 말이다. 이주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은 믿음이다.

8) Ibid., 441.

9) Ibid., 625.

10) Ibid., 813.

11) Ibid., 1005.

12) Ibid., 1193.

- 온 열방의 하나님¹³⁾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타자를 거부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를 만드셨지, 나라나 종족을 만들지 않으셨다. 나라와 종족이 나뉜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이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이것은 이사야 60장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진 날이다. 동일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한다.

3.1.2. 성경과 관련된 현대적 주제들

- 당신 뒷마당의 난민들¹⁴⁾

성경 인물들의 다양한 이주 사례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환대가 선한 결과들을 가져왔음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촉구한다.

- 기후 변화와 이주¹⁵⁾

이주의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기후 변화이다. 기후 변화는 농작물 파괴처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구약의 룻기에도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기근을 피해 이주해서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불행을 당한 이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이주자의 존재는 그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한 이들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 이주 노동자들¹⁶⁾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왔던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듯이,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 지역에는 축복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 트라우마에 반응하기¹⁷⁾

13) Ibid., 1381.

14) Ibid., 61.

15) Ibid., 249.

16) Ibid., 437.

17) Ibid., 629.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처럼, 강제에 의한 이주는 트라우마이다. 현대에도 경험되는 이러한 트라우마는 성경 내러티브를 읽고 우리 자신을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의 반응을 강제 이주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 난민 섬기기¹⁸⁾

난민을 돌보는 일은 일부 활동가나 단체만의 몫이 아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도우라고 명령한다. 오바다서는 에돔이 난민이 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착취했을 때 받은 경고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오바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 길 위에 하나님¹⁹⁾

성경의 하나님이 이민자 신학의 근거가 된다. 예수가 성육신했을 때,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의 거리를 건너셨다. 예수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성막 안에 거하시며 돌아다니셨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하셨다.

- 어려운 상황 속에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기²⁰⁾

레바논인들은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중에도 난민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을 믿어야 한다.

- 기독교 이주자들이 새겨야 할 다섯 가지 중요 원리²¹⁾

첫째, 그리스도인 이주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출석해야 한다. 둘째, 이주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셋째, 이주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넷째, 이주한 국가의 예절과 관례를 가능한 많이 배워야 한다. 다섯째, 이주한 국가에 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문화 이해력²²⁾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 이해력이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예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화적 장벽을 건넌으로써 여인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바울 또한, 유대

18) Ibid., 817.

19) Ibid., 1001.

20) Ibid., 1007.

21) Ibid., 1189.

22) Ibid., 1377.

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그의 높은 문화적 지능을 드러낸다.

3.2. 현대 이주민 이야기(Modern Migrant Stories)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각각의 장문 기사마다 또 다른 읽을거리로 하나씩 따라 나오는, 현대 이주민 이야기이다. 현대 이주민 이야기는 이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극복한 실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통 장문 기사 하나와 현대 이주민 이야기 하나가 짝을 이루고, 두 짝이 연속하여 나온다. 즉, 열여섯 개의 장문 기사와 열여섯 개의 현대 이주민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 나오고, 하나 남은 장문 기사는 1,007쪽에서 또 다른 장문 기사 다음에 나온다.

3.3. 성경 읽기 계획(Reading plans)

마지막 구성 요소는 성경 읽기 계획이다. 성경 읽기 계획은 성경의 일부를 주제를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묶어둔 것이다. 이주와 관련된 주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성경 읽기 계획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성찰 질문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소개로부터 특정 페이지와 성경 본문으로 가도록 지시한다. 해당 페이지로 가면, 그 본문과 독서 주제에 대한 한 페이지 분량의 설명이 나오고, 다시 해당 주제에 맞는 다른 페이지와 성경 본문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해당 성경 본문에는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수직선이 본문 옆에 그어져 있어, 읽기 계획을 잘 따라 읽을 수 있기에 편리하게 해 두었다. 이런 식으로 한 주제와 관련해 성경 전체적으로 다섯 개에서 열 개의 목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번에 목상할 성경 본문은 적게는 한 절부터 많게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성경 읽기 계획은 다섯 개의 대 주제 아래 관련된 소주제들이 포진해 있다.²³⁾ 다음은 성경 읽기 계획의 주제들이다.

- 성경 발견하기: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이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 구약 본문들, 주요 신약 본문들
- 성경 속 이주: 아브라함: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축복을 가져오는 이주자들: 요셉, 신약 속 다문화 교회들, 외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23) 대주제와 소주제라는 명칭은 *Migration Bible*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다.

- 문화적 교류: 문화적 충돌 다루기, 다리 놓기, 환대는 중요하다, 예배
- 회복탄력성: 불확실성과 함께 살기, 하나님께 애통하기, 소외가 관계가 될 때, 기도
- 소망: 변화된 인생들, 포로기 이후의 새로운 희망과 역경, 희망은 한다

이 성경 읽기 계획의 분류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 발견하기라는 대주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Migration Bible*은 이것들을 각각 문화적 교류라는 주제 아래 묶어 두었다. 이는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섬김의 종교적 활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적 활동이 성경적 예배라는 선언이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좋은 통찰이다.

성경 본문의 마지막, 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후에는 간단한 “단어 목록(word list)”이 수록되어 있다.²⁴⁾ 이 단어 목록은 성경 내 생소한 단어들을 소개하여, 성경 읽기의 이해를 높인다. 예를 들어, 아빔월, 아세라, 아르테미스, 아멘, 예봇, 회당, 랍비 등, 총 165개의 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4. 집필진

서른 명의 집필진이 장문 기사, 성경 읽기 계획, 현대 이주민 이야기를 나누어 집필했다. 수록된 글들이 전문적인 성경 연구라기보다는 이주를 주제로 한 에세이들이고, 이 성경의 목적이 이주에 관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필진에 학자뿐 아니라, 선교사, 이주자, 목회자, 활동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5. 평가

이주라는 특정한 주제를 통해 성경을 읽도록 의도된 *Migration Bible*은 장단점이 명확하다. 먼저, 이 성경의 아쉬운 점에 대해 논한 뒤, 유익한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 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 성경이 어떤 의의가 있을지 간단

24) 하지만, 이 목록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Good News Bible에 포함된 것이다.

하게 언급할 것이다.

5.1. 아쉬운 점

먼저, 여러 개의 성경 읽기 계획이 있지만, 그중 어떤 것들은 조금 인위적이거나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령을 주제로 한 성경 읽기 계획은 왜 민수기 11:16-30²⁵⁾에서 시작하는지 의아하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칠십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과 연결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구약의 성령론을 다룰 거라면, 왜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가 아닌가? 만약 창세기 1:2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혹은 강력한) 바람”이나 “하나님의 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면, 출애굽기 31:3과 35:31에서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가? 또 “불확실성과 함께 살기”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이주나 광야 방랑이 왜 빠져 있는가?

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문 기사와 현대 이주민 이야기 등의 읽기 자료가 두서없이 삽입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읽기 자료의 내용과 그 주변 성경 본문의 내용 사이에 특별한 관련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특정 페이지에 특정 읽기 자료를 배치한 이유가 있다면, 서두에서 그 이유를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

장문 기사에는 좋은 글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 해석이 너무 단순하고, 이주라는 주제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이주(Climate Change and Migration)”라는 장문 기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기후 변화와 연결 짓는다.²⁶⁾ 그러나 기후 변화는 기근의 필요조건인가? 기근의 이유는 다양하다. 요엘서의 묘사처럼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 치웠을 수도 있고, 땅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혹은 화재 같은 사고가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쳤을 수 있다. 룻기의 저자는 기근만 언급했을 뿐, 기근의 이유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다른 예도 있다. 레바논 교회들이 자국 정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난민을 돌보기로 한 것을 말할 때,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외국인을 돌보라고 했던 신명기 10:18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라고

25) *Migration Bible* (Haarlem/Antwerpen: 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 2023), 181.

26) *Ibid.*, 249-250.

하셨던 예수님의 이사야서 인용(눅 4:18)에서 성경적 당위성을 찾는다. 레바논 교회의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약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하지만, 인용된 본문들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약한 이들을 도우라는 말씀은 아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선대에 관한 언급도 역시 약자로서 더 약한 자를 돕는 주제와 상관없어 보인다.²⁷⁾

또한 저자와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문 기사가, 이주자들은 그들이 건너온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축복이고, 비이주자들이 이주자들을 선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피상적인 성경 해석과 결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유익을 얻었다거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있었기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해석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이주자가 축복이라는 것은, 현대 다문화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공동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실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보다, 그 문제 자체와 성경의 대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실제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현실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주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기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이주자들은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굳이 성경의 예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많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이 현지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로마서 12:18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²⁸⁾ 이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반목 등의 상황과 이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를 선교에 동참시키려 했던 바울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복음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주석적인 근거와 힘을 더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장문 기사나 성경 읽기 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Migration Bible*이 제시하는 이주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맞지 않는 어

27) Ibid., 1007-1008.

28) Ibid., 1190.

렵거나 꺾끄러운 성경 본문을 피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여럿 있다. 레위기 25:44-46을 예로 들어 보자. 이스라엘인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인이 다른 이스라엘인을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사고팔 수 없다. 하지만 본문은 이방인을 평생 노예로 부리는 것은 허락한다. 외국인에 대한 성경 속 용어들을 다루며, 레위기 25장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장문 기사²⁹⁾조차도 25:44-46을 다루지 않는 것은 일부러 어려운 본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25:44-46은 *Migration Bible*의 여러 집필진이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또 에스라서 마지막에는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한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가나안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룿이 다윗과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에스라-느헤미야 본문을 포로에서 돌아온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빼뺏어진 열심으로 치부할 것인가? 이러한 본문들은 분명 이주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성경 독자들이 질문을 가질 법한 본문들이다. 하지만, *Migration Bible*은 이러한 본문들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성경 해석과 관련된 이러한 아쉬움들은 *Migration Bible*이 스터디 바이블이 아니라는 점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오히려 이주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성경 해설과 성찰 질문이 본문마다 관주처럼 나오고 성경 읽기 계획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성경 전반에 걸쳐 용어와 개념을 따라가도록 편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짧은 글들과 성경 읽기 계획표는 차라리 얇은 단행본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현재의 편집 상태에서는 이주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성경 본문까지 새로 살 필요를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집부에서는 이 성경을 스터디 바이블로 만들지 않았고, 현재의 상태에서 본격적인 스터디 바이블과는 다른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위에 언급한 단점 중 어떤 것들은 도리어 *Migration Bible*의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아래를 보라).

5.2. 유익한 점

이 책의 유익한 점도 많다. 특히 성경 읽기 계획과 성경 해설이 곁들여 있는 장문 기사뿐만 아니라, 현대 이주민 이야기도 이주를 주제로 한 성경 공

29) Ibid., 65-66, 165.

부 도구로 안성맞춤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주민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시간을 두고 찬찬히 바라보고 연구할 기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그네 돕기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외부인들을 우리 사회에 대한 막연한 위협으로만 느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이웃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그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이 이주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오늘날의 이주민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Migration Bible*은 이것을 위해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손쉬운 도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문 기사나 성경 읽기 계획의 성경 해설이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평이함은 장점이기도 하다. 먼저, 이주민이든 비이주민이든 성경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성경 공부도, 조금 어렵고 복잡했다면, 이 성경을 이용하여 이주와 관련된 성경 공부를 가르칠 훈련 받은 사역자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쉬운 글들과 많지 않은 분량의 성경 읽기 계획은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평소 이주민 문제에 관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분량에 대한 부담 없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그룹 성경 공부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 및 묵상을 위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된 중 상당수가 전문적인 성경학자가 아니라 이주민 출신이거나 현장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상 독자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보다 비이주민에게 이주와 이주민들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실화를 담고 있는 현대 이주민 이야기들은 이주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의로 이주한 사람들이고, 난민은 전쟁 등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현지 법까지 어겨가며,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편견이 서구에도,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 떠나오는 이유에는 단순히 전쟁과 같은 물리적 생명의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주자들의 아픔, 이별, 부당한 대우, 고군분투, 화해, 성공 등을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어려움, 특히 기후 변화까지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런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지에 정착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 주는 장문 기사들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더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룻, 다니엘, 기드온 등, 인생의 역경을 딛고 승리를 얻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주자라면, 오늘날의 이주자들에 그들을 투영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룻과 나오미처럼 가족을 따라 이주한 여성이 도리어 그 자신이 가장이 되어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룻과 나오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보아스처럼 이들을 선대 해야 한다는 교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6. 나가는 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주민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Migration Bible*의 출간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고, 불법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Migration Bible*이 한국어로 번역된다면,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성경적 나그네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매력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현대 사회 문제와 관련성이 큰 주제라고 할지라도, 이주라는 주제로만 목상 혹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관주 성경과 스터디 바이블 사이에서 이 정도의 평이하고 간단한 해설이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이주라는 주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Migration Bible*이 이주라는 주제를 계속 중심에 두되,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주제어>(Keywords)

이주 성경, 이주, 이주민, 굿뉴스 바이블, 해설 성경.

Migration Bible, Migration, Migrant, Good News Bible, Study Bible.

(투고 일자: 2024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해설 · 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0.
- 최진영, “*The Financial Stewardship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11)”, 「성경원문연구」 35 (2014), 371-384.
- American Bible Society News, “Dr. Eugene Nida (Nov. 11, 1914 - Aug. 25, 2011)”, <https://www.news.americanbible.org/article/dr.-eugene-nida-nov.-11-1914-aug.-25-2011> (2024.7.29.).
- American Bible Society, *Good News Bible: Good News Transl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2).

<Abstract>

**Book Review - *Migration Bible*
(Haarlem/Antwerpen: 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 2023)**

Sun Bok Ba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is a review of the *Migration Bible*, which comprises seventeen “Long Reads,” sixteen “Modern Migrant Stories,” and thirty “Reading Plans.” Despite being termed “Long Reads,” all are just two pages long, making them accessible and not overwhelming. The Long Reads delve into biblical migration stories, correlating them with contemporary migrant situations and providing in-depth explanations. Modern Migrant Stories share real-life accounts of migrants who have overcome challenges with the support of faith and church communities. The Reading Plans group Bible passages by the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gration-related topics, offering brief introductions and reflective questions for each theme.

The influx of large numbers of migrants is considered a societal issue today. A few years ago, Republic of Korea experience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acceptance of Syrian refugees. In the Western world, such as North America and Europe, conflicts arising from migrants and refugees have become far more significant social issues than in Asia. In this context, the Nederlands-Vlaams Bijbelgenootschap (Netherlands-Flanders Bible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Bible Societies, has published the *Migration Bible*. This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s providing a biblical perspective on modern social issues. One of the key advantages is that it provides non-immigrants with a chance to reconsider their views on migration and migrants. The real-life stories of modern 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undocumented immigrant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diverse circumstances they face. These narratives, depicting the challenges, separations, injustices, struggles, reconciliations, and successes of migrants, highlight that the reasons for leaving one’s homeland extend beyond immediate threats like war. Social and economic hardships, particularly those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can also force people to leave their homes, sometimes at the cost of their legal status, to seek

safety elsewhere. It underscores that deciding to leave one's country is a difficult choice for anyone.

However, while the essays offer simple and concise biblical interpretations, making bibl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more accessible, they also risk promoting a somewhat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current migrant issues. Despite differences in authors and topics, many articles tend to arrive at a similarly simplistic conclusion: that migrants are a blessing to the countries they enter and that it is God's will for non-migrants to treat them kindly. The message that God loves the vulnerable, so they should not lose hope, and that migrants should adapt well to their new societies is a sentiment that most people can agree with, even without biblical references. Additionally, the Migration Bible sometimes seems to sidestep challenging or uncomfortable biblical passages that might not align neatly with the message of loving migrants.